

# 124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

## 복잡한 절차로 사람 잡는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OUT!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및 사전 본인확인 없는 원클릭 시스템 구축

“온갖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인증과정을 견디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한국 친구들이 신기해요” 프랑스의 한류 팬 엘리자 씨는 한국 아이돌이 광고한 운동화를 주문하려다 포기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물의 인증 절차를 뚫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을 괴롭혀온 온라인 스트레스의 주범, 공인인증서 규제가 개선됩니다. 우선, 30만 원 이상 결제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했던 의무규제가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여부 확인 없이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 결제 환경이 대대적으로 갖춰질 예정입니다.



- 내·외국인들의 전자상거래 결제불편 해소 및 거래절차 간소화



#### 개선 전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  
온라인 카드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SMS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 개선 후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에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본인여부 확인 없이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 구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14.5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금융위, '14.8월)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02-2156-9856),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56-9493)

# 125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 면세점 알뜰쇼핑족에게 반가운 소식!

“얼마 전 카메라가 망가져 새로 사야하고, 부모님 선물도 드리고 싶은데 400달러 한도 내에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고민이에요. 카메라를 포기해야 할까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던 P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됐단 반가운 소식을 들은 맘을 놓았습니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의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26년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해외여행객 1,5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을 기록하는 추세에 따라 규제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상향된 것입니다. 내년부턴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여행객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 및 국민후생 증대



#### 개선 전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로 제한

#### 개선 후

2014년 9월5일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휴대품부터 면세한도 600달러 적용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적용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재부, '14.9월)

문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126

온라인쇼핑몰, 주민등록번호 확인 없이 이용 가능

## 주민등록번호 제공 없이 인터넷 쇼핑해요!

“온갖 쇼핑몰에 가입하며 주민번호를 입력해왔는데, 혹시 유출되면 어쩌죠?”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A씨는 요즘 불안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둔 온라인 쇼핑몰들이 A씨는 불안스럽습니다.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는 해외 쇼핑 사이트와는 달리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본인확인을 요구해왔습니다. 법률상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됐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정보유출 걱정을 덜게 됐고 국내 쇼핑몰을 찾는 외국인들의 불편도 해소됐습니다.



- 인터넷쇼핑 이용자(약 3,000만명)가 주민등록번호 제공 없이 인터넷 쇼핑이 가능, 개인정보 수집·보존을 최소화해 유출 피해 최소화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하게 돼 30배에 달하는 온라인 무역 역조 해소 기반 마련



### 개선 전

사업자는 소비자의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를 보존해야 함

### 개선 후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월 국회 제출 예정 (미래부, '15년 예정)

# 127

외국인의 한류 콘텐츠 구매를 가로막던 본인·연령 확인 해소

## “해외에서도 쉽게 즐기는 한국 콘텐츠!”

쇼핑몰 운영자 Y씨는 최근 새로운 사업구상을 세웠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소비자에게 특화된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음원과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 좋겠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H-PIN인증, SMS 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게임,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판매자는 이용자의 본인·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국민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 때문에 외국인들은 국내 사이트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이용자를 본인·연령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개선이 이뤄졌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 • 해외 소비자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 불편 해소

국내 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 해외수출 활성화에 기여



**개선 전**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연령을 확인해야 함

**개선 후**

외국 이용자에게는 본인·연령 확인 의무를 면제(접속IP 기준으로 외국 이용자 판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 '종합대책대책' 발표 예정 (미래부, '14.12월)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6)

#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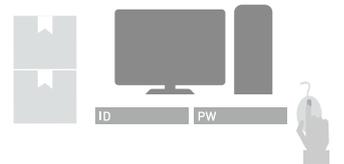
온라인 카드 결제 시 '원클릭 간편결제' 가능

## 복잡한 온라인 결제 스트레스 OUT!

“해외의페이팔, 알리페이처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들이 훨씬 편해질 텐데요...” PG(전자결제지급대행)업체 C사는 외국에서 널리 쓰이는 원클릭 간편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지만 규제에 막혀있습니다. PG업체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금지하는 규제 탓에 매번 결제 때마다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카드결제시 H-PIN, SMS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하는 현실도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카드결제가 간편해집니다. PG업체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돼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결제할 때마다 필요했던 본인 인증도 생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로 소비자  
이용 편의성 증대



### 개선 전

PG사(전자결제지급대행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이 금지되어,  
결제시마다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함  
결제할 때 마다 본인인증 요구로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불가

### 개선 후

PG사에서 신용카드승인정보를 저장 가능하도록 가맹점약관 개정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ID, PW 입력만으로 결제 가능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예정 (미래부, '14.12월)

# 129

온라인 정보수집 동의 절차 간소화

## 수많은 결제정보 수집 동의 항목, 클릭 한 번으로 패스!

“모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결제 확인 버튼을 누른 순간 이 같은 메시지창이 뜨자 K씨는 짜증이 확 났습니다. 급하게 주문할 물건이 있어 빠르게 클릭을 하다 보니 동의 항목 하나를 빠뜨린 겁니다. 작은 글씨에다 어려운 말로 쓰여 있어 읽기도 힘든 내용을 왜 일일이 동의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해야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K씨처럼 기계적으로 카드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항목별 체크를 하느라 클릭 횟수가 증가해 결제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편이 해소됩니다. 동의 내용이 보다 쉽게 바뀌고, ‘일괄 동의’ 체크가 가능해진 덕분입니다.



- 연간 12억5,000만건에 달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 3,000만명의 편의성 제고



### 개선 전

전자결제 시 반복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결제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구로 인한 결제 소요 시간 증가 및 불편 초래  
동의 내용을 작은 글씨나 장황하게 표현해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 개선 후

여러 동의사항에 대한 ‘일괄동의’ 가능  
동의 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지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미래부, '14.12월)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6)

# 130

학부모 개인정보 과다 수집 관행 개선

## 우리 아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제 걱정 덜었어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N씨는 매년 신학기가 시작될 때 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부모의 직업과 학력 때문에 아이가 주눅 들지 않을까, 혹여 교사에게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젠 N씨는 염려를 놓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초·중·고교가 가정양육상태, 주거현황 등 학부모의 신상을 수집하며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기재 방식으로 이뤄졌던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을 학부모 판단에 따라 작성토록 하는 소동형 자율기재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수집항목도 줄였습니다.

### 생 환경 조사

( ) 전화 (D.D.D.)	-	-
월 일 (양음)(만 세)	주민등록번호	-
월 일 ( ) 초등학교 졸업	학역형	( ) 명
중, 하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연립주택, 임대주택 및 전세, 월세
스, 도보, 자전거, 붓고, 자가용	거리	km
부	모	연 주소
명		우편번호
일 19 . . (양력) 19 . . (양력)	전 화	
의 ( ) 례	( ) 례	조부(유,무) 조모(유,무)
( )		오빠 ( )형 언니
		남동생 ( )명 여동생 ( )명
연령 직업 (구체적)	종교	학력
		자신을 알게 함



- 관행적인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개선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 개선 전

교육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가정양육상태, 주거현황, 학력 등)를 필수적으로 수집

### 개선 후

학부모 개인정보 조사양식을 필수 기재에서 자율 기재 방식으로 개선, 수집항목 축소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실적 제출 및 신학기 수집제한 공문' 시달 (교육부, '14.3월)

# 131

약국 외에서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 가능

## 인터넷 주문으로 간편하게 건강 체크하세요!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시험지는 꼭 약국에서 사야 하나요?” 콜레스테롤 수치 고위험 진단을 받은 Y씨는 꾸준한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시험지는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참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Y씨는 이제 번거롭게 약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와 시험지를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규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는 의약품으로 이를 이용한 측정분석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두 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측정시험지도 측정분석기처럼 의료기기로 바뀌며,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한 원스톱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임신진단기기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요한 128만여명의 고지혈증 환자의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 편의성 제고



### 개선 전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이를 이용한 분석기를 각각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 관리  
임신진단기기를 의약품으로 관리

### 개선 후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및 임신진단기기를 의료기기로 관리 전환해 사용자 구입 편의성 제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11월)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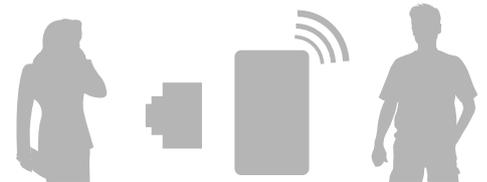
# 132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 교체만으로 이통사 번호이동 가능

## LTE폰도 내 유심 꽂으면 사용 가능!

H씨는 얼마 전부터 아들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고 싶었지만 너무 비싼 가격에 망설이던 찰나,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자신의 최신 휴대폰을 준 것입니다.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던 H씨는 쓰던 유심을 그대로 아들의 LTE폰에 삽입해 저렴한 LTE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H씨가 아들의 폰으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규제가 개선된 덕분입니다. 전에는 3G 스마트폰의 유심은 자유롭게 기기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LTE스마트폰에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끼우면 LTE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개선되며 A통신사에서 구입한 LTE 단말기('14.7.1. 이후 출시된 단말기)에 B통신사의 유심을 끼워도 모든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LTE서비스 이용자의 단말기 · 이통사 선택권 강화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



### 개선 전

3G스마트폰은 유심을 마음대로 바꿔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LTE 스마트폰에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끼우면 데이터를 제외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음

### 개선 후

**유심 이동성을 3G뿐만 아니라 LTE서비스 까지 확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개정 (미래부, '14.7월 시행)